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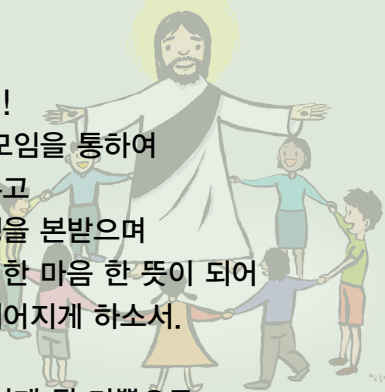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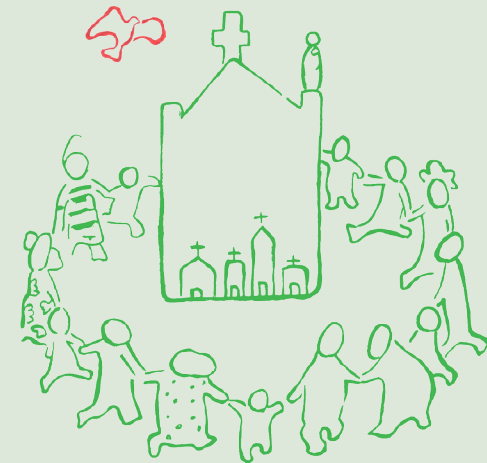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1] 주님초대하기
-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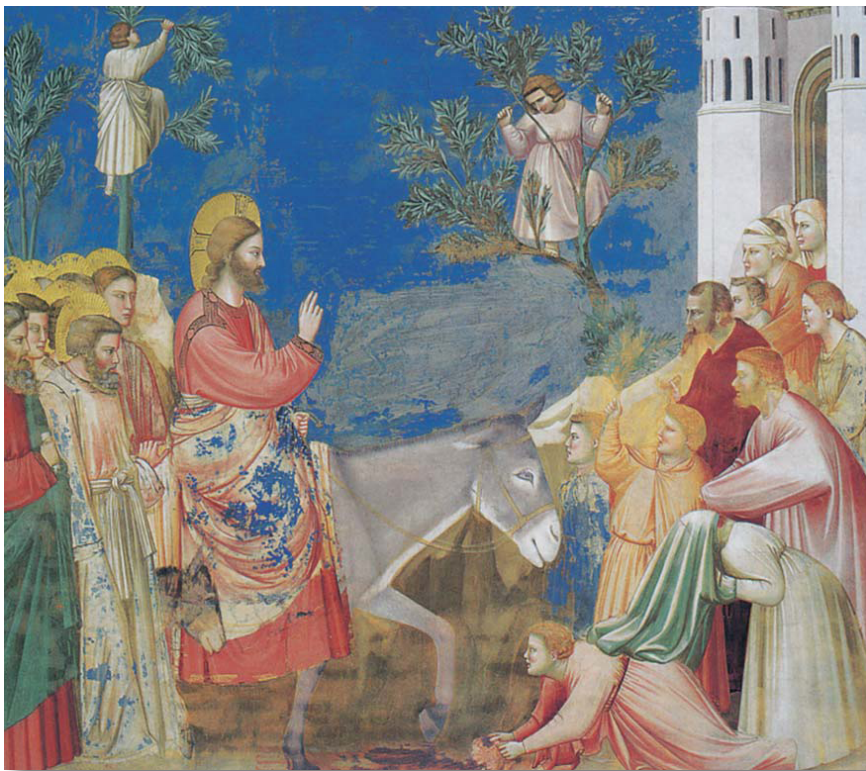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수난 복음 중 루카 23,34-39)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 (오토 디 본도네, 1302~1305년, 프레스코화 파두아 스크로베니성당 소장) —

군중들은 자신들의 겂옷을 벗어 예수님이 지나시는 길에 깔고, 올리브 나뭇가지를 꺾어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한다. 제자들도 무리지어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 지오토는 장엄함과 역동적인 표현으로 그날의 광경을 묘사하였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은 수난과 죽음을 넘어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뻐함과 동시에 새로운 예루살렘인 교회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기념한다.

지영현 시몬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 서울주보, 2013. 3. 24.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89장 “보았나 십자가의 주님을”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당신의 수난에 저희도 함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 주님, 당신의 수난에 저희의 기도가 작은 위로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루카복음 23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34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겂옷을 나누어 가졌다. 35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36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37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38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39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루카 23,34)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적이 있습니까?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루카 23,37)

누군가를 비웃거나 빈정거린 적이 있습니까?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97년 9월 16일에 있었던 명량해전을 골격으로 삼아 제작한 한국영화, ‘명량’이 온 국민들로부터 열광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직 되었던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을 받은 후에 보여준 충성심과 용기와 결단력과 지혜를 보고 감동을 받은 탓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고 외쳤던 명장이 이순신입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수군이 나누는 대화가 기억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것을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알까?” “그것을 모르면 호로자식들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의 수고와 희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인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희생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지배하는 메시아가 아닌 수난당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사순절은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살펴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 걸음을 멈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우리를 위해 수난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소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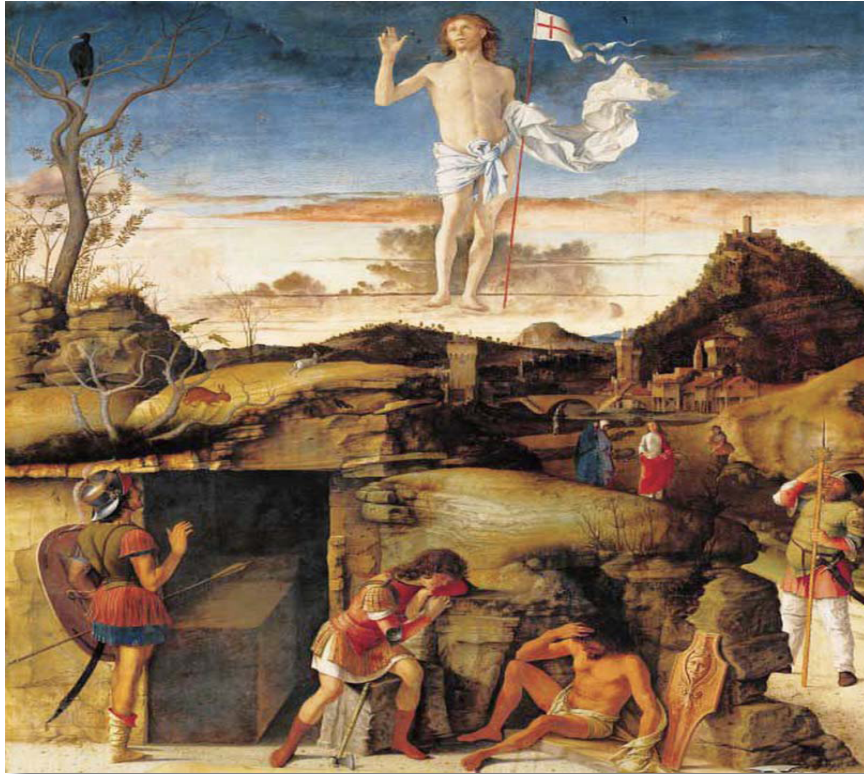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15장 “수난 기약 다다르니”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부활 대축일 “부활하시다” (요한 20,1-9)



그리스도의 부활

– 조반니 벨리니, 1475~1479년, 나무에 유채, 독일 베를린 국립미술관 소장 –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조반니 벨리니의 작품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는 그리스도의 발밑에 그가 묻혔던 무덤이 있고, 미처 깨어나지 못한 병사들이 제각각의 모습으로 졸고 있다. 무덤 문은 이미 열려있고 그리스도는 한 손에 승리의 깃발을, 또 한 손은 세 손가락을 편 채로 새벽하늘 위로 들어 올려지고 있다. 빈 무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을 의미한다.

지영현 시몬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 서울주보, 2013. 3. 31.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30장 “예수 부활하셨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신 저희에게 참 부활의 의미를 일깨워 주소서.
- 주님, 저희에게 부활의 체험을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2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까.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4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5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6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7 예수님의 얼굴을 찢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8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9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요한 20, 1)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내 마음을 막고 있는 돌들이 있나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한 20, 9)

성경 말씀을 우리 삶 안에서 깨달을 때가 많이 있나요?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보냅니다. 교회마다 사순절과 부활절 행사를 치르느라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아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보내자마자 부활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국경일에 기념식을 치르고 이듬해까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허구도, 판타지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라

고 해서 단순히 추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추억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데서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부활신앙입니다.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절이고,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소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30장 “예수 부활하셨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가족처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동체

- 창녕본당 고암구역장 하선화 (세실리아) -

창녕 본당은 1949년 7월 26일 본당으로 설립되어 올해 70주년을 맞고 있으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본당주보로 모시고 있습니다. 현재 본당 소공동체는 8개 구역, 2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 교종미사 후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구역장들은 소공동체 평의회를 개최합니다. 고암구역은 소공동체 모임길잡이를 활용하여 매달 둘째 수요일 반원들의 가정을 순회하며 소공동체 모임을 하고 평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지합니다. 본당의 주요 행사는 소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본당의 날 체육대회 행사와 성탄전야 행사 등을 준비하고 공연경연대회 등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암구역은 전입교우로 이루어진 더 케이 실버타운 입주자 반과 기존 구역 신자 20여 명이 모인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암구역은 지난 성탄전야 행사에서 반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여 최우수 팀으로 선정되어 십만 원의 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타 구역에서는 반원들이 줄어들어 우려하고 있지만 저희 구역은 전일생활자와 귀농으로 인한 전입 인구 증가로 반원들이 차츰 늘어나는 추세여서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입자가 오면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반원들은 가정방문을 하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과 더불어 지역사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독거노인들을 방문하여 함께 하고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등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병자성사 대상자와 병자 영성체 대상자를 파악하여 신부님의 안내자 역할을 하며 협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공동체가 장소 문제와 반원들의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 반에 함께 할 반원들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소공동체가 가족처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로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쉬는 교우를 다시 교회로 인도하고 새 교우들이 성당을 찾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본당 설립 70주년 역사에 맞는 소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남

3)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나의 정신과 감정 속에 깊이 머물러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이 싹틀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개방해야 합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마태 12,34)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 질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먼저 파고들도록 해야 합니다.”(복음의 기쁨, 150항)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히브 4,12)

2. 말씀 나누기를 위한 준비

1) 성경 공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 줍니다.”(2티모 3,15-17)

예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사야서 주해 PL24,17) 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 성직자성의 「교리교육 총지침」에 따르면, 신앙 교육은 무엇보다 “성경과 복음서들의 본문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가운데 성경과 복음서들의 사상과 정신과 안목으로써 주입되고 고취되어야 한다.”(교리교육 총지침, 127항)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소공동체 안에서 성



경공부는 “언제나 신앙과 교회의 전통 안에서 성경에 다가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둘이나 셋이 당신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오늘도 살아 계시듯이(마태 18,20) 그 말씀들이 살아 있는 말씀으로 느껴지게 하는”(주님의 말씀, 74항) 방법을 내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회가 소공동체 봉사자들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소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성경을 함께 공부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단계별 성경 교재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소공동체 교육교재 〈한마음 한 뜻으로〉, 천주교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사목국 일정

■ 소공동체장 연수

지 구	일 시	장 소
진주지구	3월 28일(목) 오후 1시 ~ 4시	옥봉동성당
거제지구	4월 4일(목) 오후 1시 ~ 4시	거제성당
마산지구	4월 11일(목) 오후 1시 ~ 4시	월영성당
창원지구	4월 23일(화) 오후 1시 ~ 4시	사파동성당

- 주 제 : 『말씀 맛들이기』 이론과 실제
- 강 사 : 이청준 신부님(마산가톨릭교육관 관장)
- 참가비 : 1인 5,000원
- 준비물 : 성경(개인지참), 필기도구, 개인컵
- 신 청 : 교구 공문을 참조하여 본당을 통해 신청
- 문 의 : 055)249-7021~3